



## 순례길서 만난 연꽃의 향연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한 상월선원 만행경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8일간 총 196km를 이동해 경남 거창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하루 평균 25km를 걸어 9일 법보종찰 해인사, 16일 밀양 표충사를 거쳐 18일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총 423km를 나아간다.

사진은 10월7일 함양지역 순례 중 상림공원 연지에 활짝 핀 빅토리아 연꽃을 감상하며 행선 중인 천리순례단. [☞ 관련기사·사설 4·5·23면](#)  
함양=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추진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10월5일 조계종에 공문 보내 역사왜곡·종교갈등 소지 인정  
“남한산성·천진암 등 특정 종교 성지 왜곡 비취칠 줄 몰라”  
명칭 변경·사업 협조 요청도...원경 스님 “법보신문 역할 커”

경기도 광주시가 호국불교 성지 남한산성과 천주학을 공부하던 이들을 보호하다 스님들이 희생되고 폐사된 천진암, 나눔의집을 비롯해 광주시의 역사문화 유산을 꺼내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역사왜곡과 종교갈등 소지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시장 신동한)는 10월5일 조계종 총무원으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공문은 조계종 사회부가 9월13일 광주시에 ‘가톨릭 순례길’ 추진 배경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항의공

문을 보낸데 따른 회신이다. 조계종은 이후 2차례 광주시장 실무자들과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광주시는 천주교 수원교구와 순례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32km의 성지순례길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 순례길에는 불교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나눔의집과 승군의 호국역사가 깃든 남한산성을 비롯해 가톨릭과는 전혀 무관한 조선백지도요지, 신익희 생가, 해난철현 묘, 경안습지생태공원 등 관광명소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남한산성과 천진암의 역

사적 배경과 가치를 외면하고 천주교 순교성지로서만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왜곡” “광주시가 가톨릭 성지순례길이라는 개념 아래 역사문화유적지까지 하위 개념에 종속시키면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졸속편파행정” 등의 비판을 받았다. 광주시는 공문에서 “호국불교 성지인 남한산성과 천진암 스님들의 희생,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을 특정 종교 성지로 왜곡해 비취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불교계의 송고한 가르침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한산성의 ‘호국불교’ 가치와 천진암의 자비정신을 광주시민들은 자부심의 역사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로 묶인 광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 명소화하고

자 ‘광주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향후 종교적 갈등과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남한산성~천진암 성지 광주순례길’ 사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향후 본 사업에 대해 귀 원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보신문은 9월10일 ‘경기도 광주시, 불교유산까지 꺼내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추진’ 기사와 기고를 시작으로 ‘가톨릭 순례길’에 대한 문제점과 불교계의 반발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종교평화위원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광주시의 종교편향적 행위를 규탄했으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도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은 향후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를 계기로 정부와 모든 지자체에도 이와 같은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광주시가 ‘가톨릭 순례길’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법보신문의 역할이 컸다”며 “이런 일을 계기로 남한산성과 천진암에 대한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고 불교적 가치를 조명하는 작업과 더불어 광주시뿐 아니라 전국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2대 포교사단장 선거에  
김영석 부단장 단독 출마  
10월16일 선거서 당선증 수여

조계종 포교사단 제 12대 단장에 김영석 현 수석 부단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주진)는 9월28일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2차 선거관리 위원회를 열고 제12대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단장 후보자를 확정지었다.

포교사단장에 단독 출마한 김영석 현 수석부단장은 2006년 청주 용화사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 11기로 품수 받았다. 2016년 조계종 디지털대학을 졸업, 10기 전문포교사 품수 후 충북지역 단장, 포교사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단장 후보에 서정각 부단장, 김덕중 전 총괄팀장이, 경북 지역단장 후보에 박돈우 현 총괄팀장이, 미국 수석부단장, 임소영 현 부단장이 출마해 경합을 벌인다. 그밖의 부산지역 단 등 5개 지역단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광주전남지역단 등 6개 지역단은 현 단장 연임이 확정됐다. 당선증은 10월16일 포교사단-지역단 동시 선거 후 수여된다. 방청객 포교사단장은 “11대 집행부가 공을 들여 개정한 정관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규정을 완전 숙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주장  
조계종 “명예훼손...공개참회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

칭하고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을 빗대 사찰이 부당한 돈을 받는 것처럼 매도해 불교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대변인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참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10월5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언급하면서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립공원입장료를 없애자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여러 절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다”며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내장사는 2.5km예요. 중간에 있

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요. 합리적입니까, 청장님”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 환경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

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60여년 넘게 정수해 온 것이고,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도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비롯된 것인데도 이를 사찰 측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2면에서 계속](#)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 2021년 한국불교학회 추계특별학술대회

#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영축산 통도사 구하(九河, 1872~1965) 대종사와 오대산의 한암(漢巖, 876~1951) 대종사, 그리고 경봉, 탄허, 월하, 만화 선사 등 두 산문의 불교 지성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망하는 학술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구하대종사



한암대종사

■ 장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18호 고순청세미나실

■ 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13:00~18:30

■ 문의 : 02)2263-1973 한국불교학회

### ■ 발표주제와 순서 및 시간

- 개회사 : 고 영 섭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장)
- 치 사 : 중봉 성파 (제15교구 통도사 방장) 자산 성우 (동국대학교 이사장)
- 축 사 : 이산 현문 (제15교구 통도사 교구장) 퇴우 정념 (제4교구 월정사 교구장) 윤 성 이 (동국대학교 총장)

### ■ 발표장소 교통편 안내

- 장 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18호 고순청세미나실
- 주 소 :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언덕으로 끝까지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이용) 좌측에 있는 2개의 건물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5층 큰 건물(혜화관)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7212, 간선버스 144, 301, 420, 407

| 〈제1부〉 사회 : 김지연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                                                   |
|------------------------------|---------------------------------------------------|
| 13:10~13:40                  | 九河와 漢巖의 관계 검토<br>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
| 13:40~14:10                  | 漢巖의 통도사 인연과 石潭有性<br>염종섭 (자현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
| 14:10~14:40                  | 九河의 독립운동 자료, 개요와 성격<br>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
| 14:40~15:10                  | 漢巖의 중단 인식과 조계종의 성립<br>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 15:10~15:40                  | 九河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br>최두현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휴 식 (20분)                    |                                                   |

| 〈제2부〉 사회 : 최원섭 (한국불교학회 대외협력이사) |                                                             |
|--------------------------------|-------------------------------------------------------------|
| 15:40~16:10                    | 漢巖과 鏡峰의 서간문 법거량<br>윤창화 (민족사 대표)                             |
| 16:10~16:40                    | 九河의 문집과 통도사지 간행의 불교사적 의의<br>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박물관장)              |
| 16:40~17:10                    | 근현대 오대산 삼화상 어록과 중언록 간행의 불교사적 가치<br>이성운 (동명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 |
| 17:10~17:40                    | 6.25 당시 통도사의 야전병원과 호국불교 역할<br>이성수 (불교신문 취재부장)               |
| 17:40~18:10                    | 경봉과 탄허의 인연과 서간문<br>서왕모 (정도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
| 총 평 :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            |                                                             |